

「님의 沈默」과 「진달내솜」의 時間 構造의 比較 研究

梁 榮 吉*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宇宙의 時間의 여러 構造
 - 1. 超越的인 時間 認識
 - 2. 潛在된 時間과 蓄積된 時間
 - 3. 分裂된 時間의 昇華 過程
- III. 結 論

I. 序 論

문학 작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時間的 秩序' 위에 존재하며, '시간적 질서'는 구조적 양상으로 천착할 때 드러난다. 이러한 문학적 시간의 탐색은 문학 작품을 하나의 자율적 구조로 보고 인식할 때 가능하며, 이는 언어적 형식에 담겨 있는 傳言(message)의 示時素(time deixis)에 의하여 선후 관계를 밝힘으로써 파악된다. 따라서 이는 문학 작품을 하나의 언어 구조로 보고 언어 구조 속에서 시간을 읽어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 濟州大學校 國語敎育科 講師

그러나 문학 속의 시간은 話者(persona)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이를 진술하는 詩人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詩인이 텍스트로 표출하는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話者と 詩人 사이의 미분된 시간을 중심으로 그 시간의 모습을 現象學的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님의 沈默」과 「진달래꽃」을 그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이 두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서로 다른 시간의 모습을 갖고 있어 시간을 대비하고 분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위의 두 텍스트를 바탕으로 分析的 方法과 融合的 方法을 병행하여 '宇宙的 時間'에서 볼 수 있는 '超越的 時間'과 '潛재된 時間', '蓄積된 時間'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分裂된 時間'이 어떻게 문학적 시간으로 승화되는가의 문제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문학적 시간의 모습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로 진술되는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시간을 경험하고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작품이 文學的 生命력을 갖고 어떻게 빛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Ⅱ. 本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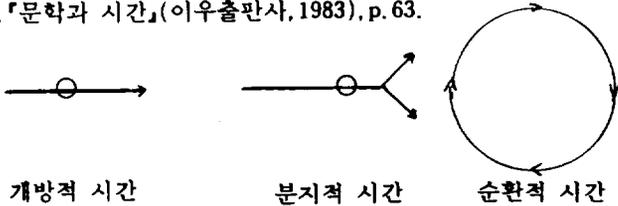
문학적 시간은 대개 開放的 時間과 分枝的 時間, 그리고 循環的 時間으로

1) 尹錫山, 「素月詩 研究」(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p.i에서는 "유형화된 화자는 그를 선택한 시인의 의식구조 내지 세계관의 반영", 또 p.3에서는 "테마는 작가가 선택한 인물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고, 구성은 행위의 배열에 해당하며, 그 하위의 장치 역시 행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화자와 시인의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함을 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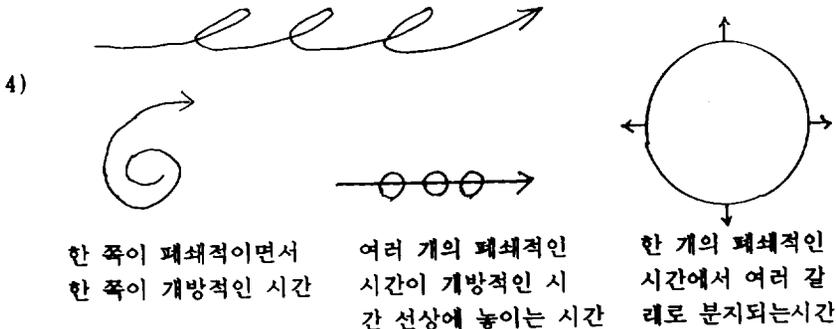
나뉘어지고 있다.” 이들을 線條的인 관점에서 나타낼 때 개방적 시간은 水平線 上에 놓이는 한 개의 일직선으로 이는 어느 쪽으로든 트여 있는 시간이며, 분지적 시간은 수평선 상에서 일직선으로 나아 가다가 두 갈래로 나뉘는 시간이다. 그리고 순환적 시간은 하나의 둥근 원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시간의 모습 이외에 螺旋形的의 時間³⁾과 아울러 한 쪽이 폐쇄적이면서 한 쪽이 개방적인 시간, 여러 개의 폐쇄적인 시간이 개방적인 시간 선상에 놓이는 시간, 한 개의 폐쇄적인 시간에서 여러 갈래로 분지되는 시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⁴⁾

이러한 시간의 특성은 物理學에 의존하여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이러한 '흐름'으로 보고 그 흐름의 방향, 폭, 길이 등을 도출해 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절이나 하루의 시간은 순환적이지만, 인간이 어떠한 테마를 갖고 생각에 몰두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열려 있는 개방적인 시간과 나선형적 시간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시간이라고 하

2) 李昇薰, 「문학과 시간」(이우출판사, 1983), p. 63.



3) 李鐵鎭 外, 「문학과 시간」(형설출판사, 1986), p. 78.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학적 시간을 바탕으로 한 '흐름'에 의해서는 '문학적 시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란, 지속 공간을 가진 공간을 의미"⁵⁾하며, 체험되는 것으로서의 폭과 길이 또는 지속 공간내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현재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현재를 중심으로 한 편에서는 사라져 가고 다른 한 편에서는 살아나는 이 두 개는 결국은 하나로써의 'NOW'이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과거와 미래의 image는 끊임없이 변화 갱신되고 있는 현재의 image이기 때문에 시간 의식의 中樞를 이루고 있는 것은 'NOW'의 의식"⁶⁾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詩人이나 作家의 경험적 시간은 '흐름'에만 의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소의 '정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⁷⁾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시간의 모습에 대하여 위에서 제시한 '평면적' 개념에서 벗어나 '입체적' 개념을 도입하여 詩人이나 作家의 정지된 시간을 '宇宙的 時間'으로 제시하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宇宙的 時間은 詩人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정서가 어느 일정한 시간 속에 감춰 '葛藤·딜레마·分裂 등'이 무한히 내재하고 있는 시간이다. '입체적인 원' 속에 감춰 있는 이러한 시간들은 서로 끌어 당기는 힘이 내재할 수 있으며, 그 길이와 넓이도 이 힘에 의하여 擴張되고 膨脹하여 한 편의 詩가 문학성을 획득하고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

5) 李鐘鎭 外, 앞의 책, p.17.

6) 앞의 책, p.18.

7) 鳥類의 알이나 곡식, 과일 등은 일정한 온도에서 정지되었다가 소멸되기도 하지만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소멸과 탄생의 두 갈래 길에서 탄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에서 탄생하고 그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나 다소의 정지된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때에는 소멸하고 만다. 즉, 鳥類의 알은 나온 순서에 관계없이 어미가 품었을 때부터 시간 흐름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어미가 품기 이전까지의 알의 시간은 어느 정도 '정지'되고 있는 자연적 시간을 인정해야만 한다.

1. 超越的인 時間 認識

그러면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는가? 詩人이 경험한 시간들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나는가?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힘’의 문제는 “우리 의식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시간의 有限性和 흐르는 물과 같은 그 不可避性”과 대치되는 “永遠이란 次元”⁸⁾을 갈망하는 超越 의지에서부터 그 힘은 발생되고, 詩人의 의식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 힘이 강하게 작용되어야만 하나의 텍스트로 탄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 힘의 정체는 투철한 作家 인식이 있어야만 消滅과 誕生의 기로에 있는 시간들을 탄생의 시간으로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

우선 「님의 沈默」과 「진달래꽃」의 全文을 살펴 보자.

- ㉠ 님은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갓습니다
- ㉡ 푸른산빛을썩치고 단풍나무술을향하야난 적은길을 거러서 참여썩치고 갓습니다
- ㉢ 黃金의꽃가티 굶고빛나든 옛盟誓는 ㉣ 차의찬썩끝이되야서 한숨의微風에 내려갓습니다
- ㉤ 날카로운 첫「키스」의 ㉥ 追憶은 나의運命의指針을 돌너노코 뒤서 거름쳐서 사라졌습니다
- ㉦ 나는 향기로운 님의말소리에 귀먹고 숫다는 님의얼굴에 눈머릿습니다

8) 李鐘鎭 外, 「문학과 시간」(형설출판사, 1986), p.21.

그리고 Shelley의 “시인은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유일한 것에 참여한다. 그의 詩想에 관한 한 시간과 장소와 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여 영원을 추구함을 제시하고 있다.

- ㉮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새에 미리 셔날것을 염녀하고 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 리별은 뜻밖의일이되고 놀난가슴은 새로
은숨에 터집니다
- ㉮ 그러나 리별은 쓸데업는 눈물의源泉을만들고 마는것은 ㉮ 스스로
사랑을 썬치는 것인줄 아는사담에 ㉮ 것잡을수업는 숨음의힘을
움겨서 새希望의 정수박이에 드러부엿습니다
- ㉮ 우리는 만날새에 셔날것을염녀하는것과가티 셔날새에 ㉮ 다시맛
날 것을 밋습니다
- ㉮ 아아 넘은갓지마는 ㉮ 나는 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
- ㉮ 제곡조물뭇이기는 ㉮ 사랑의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돕니다
…… 「님의 沈默」 全文

- ㉮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새에는
㉮ 말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 ㉮ 寧邊에 藥山
㉮ 진달내숫
㉮ 아름따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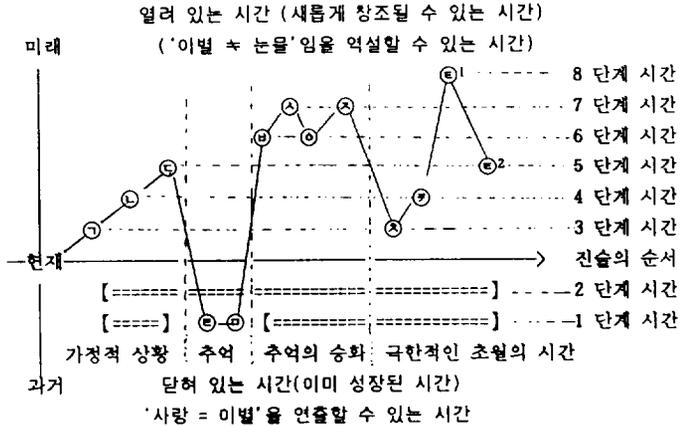
- ㉮ 가시는 거름거름
㉮ 노헌 그숫을
㉮ 삼분허 즈려밧고 가시옵소서

- ㉮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새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니우리다⁹⁾

……「진달내숫」 全文

9) ㉮-㉮의 원문자와 윗첨자는 필자가 분석을 위하여 붙였음.

〈표2〉 「진달내뿔」의 振幅 構造



〈표1〉 〈표2〉는 '立體的인 圓'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시간을 편의상 story line 을 아래에서 위로 垂直線 上(1-7, 8 단계의 시간)에 배열하고, discourse line 을 左에서 右로 水平線 上에 배열하여 선조적으로 圖式化하였다. 이때, 그 시간의 진폭은 하나의 파장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波長은 하나 하나의 宇宙의 時間이 분열에 의해서 또 다른 여러 개의 宇宙의 時間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들은 서로 끌어 당기고 확장, 팽창하는 힘으로 얽혀 있게 된다. 이렇게 얽혀 있는 시간들은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跳躍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을 초월적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초월적 인식은 〈표1〉과 〈표2〉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1〉의 경우 진술의 순서에 의하여 "(1) 울림의 시간……) (2) 초월을 위한 반전의 시간……) (3) 울림의 공간이 새롭게 창조된 초월의 시간"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혼합하여 상승적 수직성을 갖는 上向(↑)의 秩序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초월은 의지적 초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지적 진술은 "Ⓜ 리별은 뜻밖고일이되고 놀난가슴

은 새로운숨에 터집니다”, “^(㉞)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줄 아는사람에”, “^(㉟) 다시맛날 것을 믿습니다” “^(㊱) 나는님을보내지 아니하얏습니다”의 계기로 하여 “^(㊲) 사랑의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돕니다”를 指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표2>의 경우에는 그 초월적 양상이 <표1>과 달리 내적 시간착오 자체가 생략된 형태로 ‘슬쩍 豫示하는 것’(foreshadowing)의 차원¹²⁾에서 진술되고 있다. 이 또한 上向(↑)의 秩序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 질서는 ‘죽음’(永遠)이라는 極限을 指向하고 있다.

초월을 지향하는 시간 구조는 “持續·神聖·同一性·存在·單一性 등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¹³⁾로 나타난다. 결국 초월에는 緊張이나 對立이 前提된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이나 대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문제가 발생된다. 「님의 沈默」에서는 이별을 거부하는 克服을 위한 ‘拒否의 方式’을 선택하고 있으며, 「진달래꽃」에서는 人間主義의인 態度를 통하여 受容을 위한 ‘威嚴의 方式’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님의 沈默」에서는 시간성 자체를 거부하고, 일체의 현상을 空으로 인식하는 시적 의미를 含蓄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空의 현상에서 우주적인 시간의 또 하나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게 된다. ‘둥근 원 속에 감춰 있는 시간’들의 경우 수 많은 시간들이 서로 별개의 시간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와 상대적으로 그 순간들이 유기적 질서를 갖지 않을 때 無 또는 空의 개념을 도입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님의 沈默」에서는 수 많은 순간들이 유기적 질서 위에서 그 질서를 부정하고 空으로 인식하여 초월하는 시간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

12) 이러한 차원에 대하여 Edward Bullough, *Psychical Distance as a Factor in Art and Aesthetic Principle*, p.94. 이 글에서는 金俊五, 「詩論」(문장사, 1982), p.215에서 재인용. “심미적 거리는 미적 관조의 대상과 이 대상의 미적 호소로부터 감상자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즉 실제적 요구나 목적으로부터 그 대상을 분리시킴으로써 획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李昇薰, 「문학과 시간」, p.184.

「진달래꽃」에서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허무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외적 시간착오의 깊이에서 省略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를 수용하. 극한적인 상황 … 죽음…을 假定하는 초월적 의지를 표면상에 진술하고 있다. 이 또한 '등근 원 속에 갇혀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의 질서를 형성하는 선조적 시간 외에 그 위에 떠 흐르는 시간 인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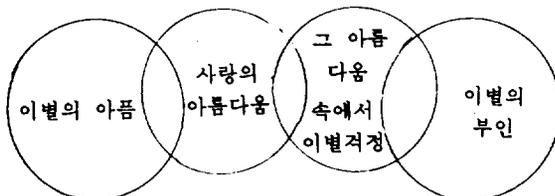
이러한 시간 인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잠재되거나 축적된 시간을 바탕으로 인식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潛在된 時間과 蓄積된 時間은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2. 潛在된 時間과 蓄積된 時間

宇宙의 時間 속에는 유기적 질서를 갖고 표면상에 진술되는 시간과 이를 부정하고 空으로 인식하는 시간 이외에 有機的 秩序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기적 질서를 받쳐주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필자는 '잠재된 시간'이라 하고 이들이 어떠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를 '축적된 시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작품의 이면에는 표면상에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잠재된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잠재된 시간'들은 하나의 커다란 입체적인 '원' 속에 크기나 비중이 일정하지 않은 여러 개의 원이 흩어져 있다가 그 하나 하나의 원이 서술자의 주관적 연결고리에 묶이게 된다. 그 묶이는 모습은 交集合(intersection)의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하나 하나의 시간이 묶이는

14) 즉, 「님의 沈黙」은 '이별의 아픔 → 사랑의 아픔다움 → 그 아픔다움 속에서 이별의 부인'이라는 각각의 시간들이 하나의 원 속에 갇혀 있다가 서로의 연결고리에 의해 하나의 교집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과정을 '시간의 축적'이라고 제시하고자 한다. 그 축적된 시간이 어떤 契機的인 事件에 의하여 유기적 질서의 힘을 갖게 되어 표면상에 진술되는 것이다. 즉, 이 축적의 과정은 서술자 내면에서 시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또한 이 '축적의 과정'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하나는 「님의 沈默」에서 처럼 유기적 질서 위에 존재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진달래꽃」에서 처럼 유기적 질서 위에 존재하지 않고 잠재된 시간 속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님의 沈默」의 경우는 잠재된 시간이 표면에 어느 정도……㉠“님은 갓습니다” - ㉡“새로운 숨에 터집니다”……노출되어 올림의 시간이 충분히 표출됨으로써 초월의 시간을 창조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진달래꽃」의 경우는 잠재된 시간이 표출되지 않고 投射(projedtion)¹⁶⁾되어, 이를 '님'의 사정으로 돌리고 가정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극한적인 초월의 시간을 창조해 내고 있다.

즉, <표1>에는 '이별의 아픔'이 축적된 모습을 선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표2>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어떤 심리적 기제에 의하여 발전되어 오히려 '이별'을 '절대적 사랑'으로 승화시키려는 시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표출된 내용의 이면에는 '이별'에 대한 불안(anxiety), 혹은 부인(denial)의 '지극한 사랑'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출은 내적 독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잠재된 시간을 표면에 진술하여 억압된 정서를 해방시키는 이완 기구

15) 이러한 시간에 대하여 츠베랑 토도로브 著, 「構造詩學」(곽광수 譯, 문학과 지성사, 1983)에서 구분하고 있는 '일회적(singulatif) 이야기', '다회적(répétitif) 이야기', '반복적(itératif) 이야기'로 나누고 있는 '빈도'(frequence)의 모습이나, 생략(ellipse) 혹은 요약(résumé)에 해당하는 '지속'(durée)의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문학 작품의 표면에 진술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에 불과할 뿐이다. 즉, 잠재된 시간은 '정신분석학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16) 자신의 내부에 생기는 욕망이나 불안 등을 억압하여 무의식화하는 심리 기제.

(release mechanism)의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깊은 정신적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게 된다.¹⁷⁾ 즉, 對峙·凝縮·分裂·投射와 같은 심리 기제가 표면적 진술의 이면에서 논리적이거나 체계적이 아닌, 僞裝되고 矛盾되거나 무시간적이고 曖昧模糊한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가 의식 속에 어떠한 형태로 變貌되어 진술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2>의 1,2 단계의 [= = =]시간은 진술의 시간과 단절되어 있는 시간으로써 잠재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1,2 단계의 시간은 단순히 달려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성장되었으며, 아울러 더욱 성장시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니우리다”로 열어야 할 시간이다. 그래야만 ‘이별 = 사랑’을 逆說의으로 創造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단계 시간의 [= = =]과 같은 線上에 있는 ㉔“寧邊에 藥山”과 ㉕“진달래꽃”은 무시간에 존재하는 純粹 意識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단계 시간의 [= = =]과 밀착되어 지속되고 누적된 ‘사랑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랑 ≠ 이별’이 아닌 ‘사랑 = 행복’의 시간에 존재한 象徵物인 셈이다

따라서 2 단계 시간은 현재의 진술을 낳는 사건이다. 즉, 그 사건이 잠재되고 축적되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현재의 각오 ㉖“말 업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㉗“죽어도”, ㉘“아니 눈물 흘니우리다”를 미래 시제로 토로하고 있다. 즉, 現在의 覺悟를 미래 지향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내적 시간착오의 넓이를 확보하여 현재의 공백을 역설화하고 시간적 거리(portée)를 유지함으로써 ‘이별 = 사랑’으로 승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과거의 일들이 계속 누적되고 팽창되어 이별의 결과를 예측(미래)하고 가정하여 창조해 낸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창조되는 시간들이 있기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의 분열되고 파괴되어 새롭게 재생되거나 아니면 시간 그 자체를 超克하는 과정에서 문학적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분열된 시간은 어떻게 문학적으로 승화되는가

17) 金時泰 外 편, 「문예비평론」(문학과 비평사, 1988), p.372.

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3. 分裂된 時間의 昇華 過程

詩人の 의식 속에 내재하는 여러 행태의 시간들은 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停止'되었다가 표출할 수밖에 없는 내적 갈등이 하나의 힘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서는 힘, 즉 분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열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분열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분열보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분열¹⁸⁾이 더 창조적¹⁹⁾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외부 요인을 내부적 요인으로 받아 들일 때, 그 시간은 '입체적인 원' 속에 갇히게 되고 '힘'으로 작용하며, 이를 分裂破壞함으로써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蓄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축적된 힘이 理性的, 知性的으로 濾過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품으로 昇華시킬 수 있는 것이다.²⁰⁾

그러므로 '입체적인 원'으로써의 우주적인 시간 속에는 여러 시간이 유기적인 질서를 갖기 이전에 파괴와 분열의 과정을 거쳐 유기적 질서 위에서 變換되고 擴張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유기적 질서에 포함되지 못하는 많은

- 18) 金昞澤, 「萬海詩에 나타난 꿈의 성격과 전개 양상」, 「문학과 비평」 1988 여름(문학과 비평사, 1988), pp.324-325에서는 “구체적인 시 작품에서는 이 두 측면(부정적 측면과 당위적 측면)이 서로 부딪치면서 야기되는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9) 尹錫山, 「素月詩의 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心田 金洪植教授 華甲紀念論叢」(제주문화, 1990), p.489에서는 이러한 창조성을 “출구가 막힌 순환구조”로 제시하고 시간의 분열에 따라 “시인의 내면에는 아니마(anima)가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아니마의 증가는 변환, 발전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새로운 시간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 20) 尹錫山의 앞의 論文, p.108. “사물의 물적 계층을 볼 수 있는 여유나 지적 사색적 명상은 현실에 직접 대응하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선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고 있다.

시간들이 분열되고 파괴된 채로 흩어져 있게 된다. 이러한 시간의 모습을 '잠재된 시간'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이 어떻게 문학성을 갖고 작품으로 승화되는가의 문제를 살펴 보지 않는 한 '宇宙的 時間'이 갖는 여러 구조를 解明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관적 시간의 양이 상황적, 혹은 상호주관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분열된 시간이 文學的 想像力(imagination)에 의하여 再構되는 과정에서 逆說的으로 認識하느냐, 아니면 辨證法的으로 認識하느냐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님의 沈黙」의 경우는 분열된 시간이 역설을 바탕으로 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진달내숫」은 변증법적 인식을 바탕으로 역설화하여 재창조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인식과 역설적 인식은 이미지의 울림을 촉발할 수 있으며, 存在生成의 힘으로 작용하여 문학성을 이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적 상상력에 起因하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心理學的 또는 精神分析學的 여건에 앞서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G. 바슐라르는 좋은 시를 정의함에 있어 "상상력을 통한 미적 감동은 놀라운 정신적 체험(새로 태어난 것 같은, 자신의 靈魂이 刷新된 것 같은)과 신선한 격앙감을 통해 존재의 전환을 체험케 한다."고 하고 있다.²¹⁾

따라서 시간의 분열은 문학적 상상력을 낳고, 이는 다시 생성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한 편의 텍스트를 誕生하게 하는 原動力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동력은 전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總體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설적 인식과 변증법적 인식²²⁾은 상상력의 力動性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를

21) 郭光洙 外, 「바슐라르의 研究」(민음사, 1976), p.23.

22) 安成洙,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發展 研究 試論」(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9), p.155에 의하면 변증법적 상상력은 존재생성의 역동성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에서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신의 구조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에서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끄는 창조적인 변화 생성의 힘"으로, G. 바슐라르의 세 가지 상상력 이외에 이 '변증법적 상상력'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역동적 상상력이라 하는데, 이 역동적 상상력은 인간 영혼의 통일적인 힘에 작용하여 기본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 質料²³⁾에 의해 자연 분출된 이미지를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판단이 되는 原形的 想像力²⁴⁾에 도달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한 편의 시는 그 이미지가 '순수한 욕망', '무상의 욕망'의 형태로 일컬어지는 역동적 상상력²⁵⁾에 의해 원형적 상상력에 '가까이 가느냐, 접근하느냐, 도달하느냐'에 따라 문학성의 정도를 測定할 수 있게 된다.²⁶⁾

그러므로 한 편의 시는 문학적 상상력의 구조 속에 하나의 미학적 사태를 결정짓는 역동성을 갖게 되어 그 구조를 지탱하게 되고, 주제를 상징화하는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詩人은 시간의 분열을 거쳐 정서의 흐름을 조절²⁷⁾하게 되고, 그 분열된 시간은 다시 정서의 조절에 의해 역설과 반전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용은 정서의 흐름에 의하여 인식의 범위를 확대 가능성의 환경 속에 위치시키고, 그 인식으로부터 진정한 가치들 끌어 내어 새로운 가치들 획득하게 한다. '이별'과 '만남의 갈망'은 새로운 맥락 속에서 인식의 주제로 하여금 가치를 바꾸거나 확대의 가능성을 경험케 하고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 23) 위의 논문 p.154에 의하면 물질적 상상력으로 규정하고 "자연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상상력"이라 하고 있다. 즉,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은 '地·木·火·風'이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텍스트의 "산", "숲", "꽃", "티끌", "미풍", "키스", "향기", "눈물", "희망" "웃", "죽음" 등이다.
- 24) 광광수 外, 앞의 저서, p.38에서는 상상력의 보편적인 궁극성 그 자체이며, 보편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 25) 안성수의 위의 논문, p.155에 의하면 '순수한 욕망', '무상의 욕망'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 최초의 인간 활동으로서의 욕망이며, 이는 "전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총체적 성격", 혹은 "인간 영혼의 통일"을 가져 오게 하는 존재 생성의 힘으로 요약되고 있다.
- 26) 拙稿, 앞의 논문, p.32.
- 27) 尹錫山의 앞의 논문, p.93. "담화 조직의 각 층위는 ...〈중략〉... 상호 인과 관계 속에서 거의 동시에 결정되며, 그것은 결국 논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학적 영역"으로 설명하여 분열에 의하여 변환 발전의 과정에서 심리적 역학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않겠다'의 극한적인 상황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필연적인 인식 논리와 정서의 흐름에 의해, 즉 내부적 요인에 의해 합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과 본능적인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등이 서로의 상호 관계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모순이 융합하고 분열을 일으켜 차원이 다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변증법적 止揚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 있다.

즉, 「님의 沈默」에 있어서 '沈默하는 님'을 核으로 하여 "㉠ 사랑하는나의 님", "㉡ 黃金의숫가티 굶고빛나든 盟誓", "㉢ 날카로운 첫'키스'", "㉣ 향기로은 님의말소리", "㉤ 숫다는 님의얼굴", "㉥ 제국조를못이기는 사랑의노래" 등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간과 이에 대응하는 "㉦ 님은갓습니다", "㉧ 참어떨치고 갓습니다", "㉨ 차되찬씨팔", "㉩ 한숨의微風", "㉪ 나의運命의 指針을 돌려노코", "㉫ 리별은 숫밭괴일이되고", "㉬ 놀난가슴은 새로운숨에 터짐", "㉭ 눈물의 源泉"이라는 '이별의 아픔'이라는 시간과 서로 대립 충돌하여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²⁸⁾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사랑의 아름다움'속에서 이별을 걱정하는 시간인 "㉮ 사랑도 사람의일이라 만날세에 미리 써 날것을 염녀하고경계하지 아니한것은 아니지만", "㉯ 리별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줄 아는싸닭" 등으로 말미암아 간척 있는 宇宙的 時間 속에서 분열을 일으켜 팽창되고 다시 교집합의 형태로 승화하여 止揚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달내숫」에서는 事前提示(prolepsis)에 의한 振幅(amplitude)이 진술의 시간 위에 떠 흐름으로써 深層과 表層의 時間的 距離(portée)를 형성해 주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는 미래 시제에 의해 확장된 현재로써 선형적인 점들이 그 간격으로 인식되는 과거인 '다시 당김(retention) … "寧邊에 藥山 / 진달내숫" …'과 미래인 '미리 당김(protention) … "죽어도" …'이라는 영역에서

28) 文聖淑, 「羅稻香論」, 「玄谷 梁重海博士 華甲紀念論叢」(제주문화, 1987), p.63에서는 "사랑'과 '죽음'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는 현실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부딪치게 되는 보편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지향성(intentionality)…“아니 눈물 흘너우리다”… 이 확장되고 있다. 즉, 과거의 전면적인 생략은 오히려 잠재된 시간을 우러나게 하는 결과를 낳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별 = 사랑’을 역설화하는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님의 沈黙」은 상황적으로는 미완의 변증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완성의 변증법을 이루어 표층과 심층이 완전히 융합된 시적 역설을 획득하고 있는데, 「진달래」는 未完의 辨證을 토대로 심층은 표층 이면에서 내비치는 구실을 하는 표층적 역설을 이루어내고 있다.

Ⅲ. 結 論

이상에서 ‘입체적 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宇宙的 時間이 갖는 ‘초월적 인식’과 ‘잠재된 시간’, ‘축적된 시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열된 시간’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승화되는가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첫째, 선형성에 의존하고 있는 시간성의 개념을 입체적 개념을 도입하여 ‘입체적인 원’ 속에 갖춰 있는 宇宙的 時間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속에 내재하는 ‘초월적 시간 인식’에 대하여 분열되는 시간들이 변환·발전하여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으로 시간을 인식하여야만, 융합·분열되기 이전의 시간과 현격한 차이를 갖을 수 있는 점과, ‘잠재된 시간’과 ‘축적된 시간’에서는, 이를 ‘빈도’의 범주나 ‘지속’의 범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제기하고, 입체적인 원 속에 갇혀 있는 여러 시간들 중에서 유기적 질서를 지탱해 주는 ‘잠재된 시간’의 모습과 아울러 이들이 유기적 질서 위에 교집합의 형태로 결합되는 힘을 유발하고 있는 ‘축적된 시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분열된 시간이 승화 과정’에서는 시간이 분열·파괴되고 이 분열·파괴된 시간들이 융합되어 이를 재창조하거나, 초극하는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변증법적으로 인식하느냐, 초월적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의 인식은 분열·파괴된 시간이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생성의 힘으로 작용하여 재구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의 힘은 그 시간 구성에 있어서 울림의 진폭과 강도를 형성하고 '입체적 원'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하여 파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닫혀 있는 시간들을 열어야 할 시간으로 인식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슬쩍 예시'하는 내밀화들 이루어 화자는 止揚의 보다 높은 차원의 '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적 시간에 대한 개념의 정립은 물론 詩人이 경험하는 시간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승화하느냐의 문제에 시사하는 바 있으리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 郭光洙 外, 「바솔라르의 研究」, 민음사, 1976.
- 金昞澤, 「萬海詩에 나타난 꿈의 性格과 展開 樣相」, 「문학과 비평」 1988 여름.
- 金時泰 外 편, 「문예비평론」, 문학과 비평사, 1988.
- 金治水 편, 「構造主義와 文學批評」, 기린원, 1989.
- 金賢子, 「金素月·韓龍雲 詩에 나타난 想像力의 變形構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논문, 1982.
- 宋 穉, 「詩學評傳」, 일조각, 1970.
- 스티븐 호킹, 「時間의 歷史」(현정준 역), 삼성출판사, 1992.
- C.G.용, 「무의식 분석」(설영환 옮김), 선영사, 1986.
- 安成洙, 「韓國 近代 短篇小說의 플롯 研究 試論」,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9.
- , 「한의 멧힘구조와 역동적 상상력」,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주대학교, 1988.
- 梁榮吉, 「〈님의 沈默〉의 構造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유근조, 「소월과 萬海 시의 대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3.
- 尹錫山, 「素月詩 研究—話者를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89.
- , 「소월시의 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김홍식교수 화갑 기념 논총」, 제주문화, 1990.
- 尹在根, 「〈님의 沈默〉 연구」, 민족문화사, 1985.
- 李昇薰 편, 「한국문학과 구조주의」, 문학과 비평사, 1988.
- , 「문학과 시간」, 이우출판사, 1983.

- 이인복, 「죽음의식을 통해 본 소월과 만해」, 숙명여대 출판부, 1979.
- 李鐘鎬 外, 「문학과 시간」, 형설출판사, 1986.
- 츠베랑 토도로브, 「구조시학」(곽광수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 폴 지네스티에, 「바슐라르의 사상」(김현수 역), 금문당출판사, 1983.
- F.Kümmel, 「시간의 개념과 구조」(권의무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6.
- P.J.즈와트, 「시간론」(권의무 역),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 한스·마이어훙, 「문학과 시간 현상학」(김준오 역), 심상사, 1979.